

EBS  + 장대균 · EBS 콘텐츠전략부

EBS 축구동호회와 축구 한계임 뛰시죠

EBS 축구동호회 창설과 발전

EBS 축구동호회는 축구를 좋아했던 직원들의 열의에 의해서 1999년에 EBS의 사업부서를 주축으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모임과 동호회에 대한 기획 작업이 이루어졌다. 초창기에는 한강이나 인근의 학교에서 비정기적인 축구경기를 갖고 뒤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다가 2002년 월드컵을 발판 삼아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2008 KOBACO 대회 EBS 축구동호회]





축구동호회는 EBS 내에 축구바람을 일으키는 WindMaker 역할을 한다. EBS 축구동호회 전용구장을 임대하여 동호회 회원의 기초훈련은 물론 축구동호회 회원가족들을 초청하여 체육대회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현재 EBS 축구동호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개최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EBS에서 정식동호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축구동호회는 EBS 직원뿐만 아니라 EBS의 제휴/협력사 직원들에게 회원가입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동호회 문호를 넓혔다.

2006년에는 EBS 동호회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동호회였다. EBS 직원만 약 90여 명에 육박하는 큰 동호회로 자리매김했고, 2010년에도 회원 수가 약 50여 명에 달하고 있다.

EBS 축구동호회 전용구장

EBS 축구동호회는 동호회가 생겨나면서 전용구장에 대한 열망이 컸다. 아마추어 야구단의 성장기를 그린 '천하무적 야구단'이 야구장 건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EBS 축구동호회는 어떻게든 전용구장을 마련(임대)하여 동호회 회원이 좀 더 편하게 숨쉴 수 있고, 회원 모두가 아무 때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지는 취지에서 전용구장 임대에도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조금 외진 학교운동장이긴 하지만 나무가 울창하여 나무그늘이 있고, 봄에는 꽃잎이 날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는 꿈의 구장을 마련하게 됐다. 드높은 하늘아래서 뛰고 달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전용구장의 꿈이 완성된 것이다.

EBS 축구동호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EBS 직원이라면 누구나 전용구장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EBS 제휴/협력사와 축구를 통한 교류의 장을 펼치기도 했다.

EBS 축구동호회의 진정한 목적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단순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회원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다.

흔히 생각하기에 축구를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EBS 축구동호회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회원에 여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가족을 초청하여 소통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로 인식하도록 노력했다. 이런 동호회 활동은 주말마다 가정을 뒤로한 채 축구장에 나오는 눈치밥 먹는 남편들에게 부담감 없이 운동을 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EBS 축구동호회는 2002년부터 KOBACO 대회(광고회사, 매체사 참여 /1부 리그 8개팀 56경기, 2부 리그 9개팀 72경기)에 진출하게 됐다. 2부 리그로 시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면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는 시스템인데, EBS는 2002년 이후 2년만에 1부 리그로 올라서고 2010년 현재까지 꾸준한 노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1부 리그 중상위권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잠시 대한민국 축구이야기를 하겠다. 사실 국내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는 국가대표 A매치 경기나 한일전이 아니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축구경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은 자국 리그인 K 리그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K 리그라는 프로 축구의 발전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진출을 7회 연속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또한, K 리그 덕분에 일본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에 국내 선수들이 진출하게 되고 그 실력이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BS 축구동호회가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 리그 역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마추어 리그가 활성화되고 사회체육의 장이 확대되는 것이 프로 리그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지자체, 회사 등의 지원이 더 이뤄진다면 국내 축구는 더욱 건전하고 즐거운 모임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 KOBACO 대회 1차전 승리의 주역]

실력은 아마추어, 노력은 프로

축구동호회는 사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승패에 연연하기 보다는 직장의 선후배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유기적인 역할놀이라 부를 수 있다. 단순하게 승패만 생각한다면 그 동호회나 조직은 쉽게 분열 될 것이다.

아마추어(Amateur)의 열정으로 시작해서 프로의식을 갖추기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 방울의 땀방울이 모여서 다른 팀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갖게 하고 경기를 지배하여 승리에 이르는 것이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다. 팀과 팀이 얼마나 조직력과 전술을 잘 구사하느냐가 승패로 연결된다.



업무적으로만 교류를 했던 다양한 직무를 가진 직원들과의 협동 체계를 이용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다른 회사나 팀과의 경기를 통한 조직력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조직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는 아마추어팀이 프로팀을 이길 수 있는 의외의 경기가 펼쳐질 수 있고, 경기결과에 따른 '감동이 있는 스포츠'다. 모든 스포츠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축구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직접 반영된다. 축구를 위한 노력과 땀이 승패를 벗어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EBS 축구동호회 KOBACO컵 대회 참가

아주 단순한 물음 하나. 우리는 왜 축구를 하는 것일까? 왜 달리고 있는가? 2002년 KOBACO(AD)컵 대회를 알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3년에 본격적으로 KOBACO(AD)컵 리그에 참여하게 된다. 축구동호회 경기가 동호회의 수준을 넘어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선·후배의 적절한 경쟁력과 참여의식이 있었다. 지속적인 참여로 인해서 실력 있는 팀들과 실력을 겨루게 되고, 막바지에는 플레이오프를 통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진정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선수 구성과 작전 등을 새로 만들고 다듬어야 했고, 주전 선수를 대신해서 뛰어줄 벤치 선수들과 팀의 중요한 부분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수소문 끝에 프로선수 출신의 기술고문을 섭외해 6개월간의 Training 과정을 거쳐서 기초가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킥, 드리블, 패스 등 팀의 조직력을 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0년 리그의 성적도 중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KOBACO 리그는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003년 축구동호회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다. 그리고, 짜릿한 개막전 승리를 하게 된다. 무려 4: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첫 상대를 가볍게 넘어섰지만 2번째 경기부터는 개인 플레이들이 늘어나거나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였다. 결국, 다년간 이어진 조직력과 기술을 앞세운 팀들에게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하면서 축구는 역시 혼자서 아닌 조직적인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3년 4월 AD컵 경기를 마친 선수들]





[2003년 7월 에스원연수원 잔디구장]

EBS 축구동호회 전지훈련

아마추어 축구선수들에게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편 선수를 제치고 강~슛 대다수의 선수들이 잔디에서 뛰어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2003년 7월 여름의 일이었다. AD컵 결승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떠난 전지훈련. 맑은 공기와 푸른 잔디에서 펼쳐진 땀별 속 경기였지만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사발이 인상적인 추억으로 기억된다.

이미 언급했지만 EBS 축구동호회의 진정한 목적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같이 땀 흘리고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회원간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동호회의 가장 중요한 결속 요인인 것이다.

동호회가 동호회 이상으로 발전하려면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여, 동호회 발전을 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와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이 유익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교육유관기관 축구대회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사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이다. 2003년 가을에는 교육유관기관 축구대회를 주최하여 성과가 좋았다. 대회 우승 아니면 준우승의 성과를 얻었고, 득점왕 등 타이틀 경쟁부문에서도 월등한 실력을 뽐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참가하여 리그전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교육기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대회는 매년 1회씩 진행됐고, 축구실력을 뽐내는 것 이외에도 각 유관기관의 업무 제휴나 사업과 관련한 교육정보 공유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경기보다 의미 있는 행사였다.

EBS 축구동호회는 이렇게 1년을 실새 없이 가정을 버리고 축구동호회에 몸담은 분들 덕분에 크게 발전해오고 있다. 공 하나에 땀방울과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2004년 10월 교육유관기관 축구대회]

EBS 축구동호회 여성들과 축구하다

2005년 그토록 바라던 일이 벌어졌다(^^). EBS 축구동호회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동대문구청 여자축구대표팀과 경기를 치루 게 되었다. 사실 유부남이 대다수인 EBS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전날 밤 한 숨도 잠을 잘 수 없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즐겁고 유쾌한 표정이다. 이처럼, EBS 축구동호회는 뛰어난 친화력을 앞세운 팀이다. 동호회 내에서는 이런 EBS 축구동호회를 토탈사커(Total Soccer,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경기를 하는)팀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2005년 4월 동대문구청 여자축구대표팀과의 친선경기]



EBS 축구동호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2002년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축구명문인 EBS 축구동호회에는 수많은 EBS 기술인협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 EBS 축구동호회는 전용 구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기술인협회 분들과 친선경기를 여러 번 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술인협회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지 않게 됐다. 아마 각각의 사연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10월 2일에는 방송통신위원장배 축구대회가 열린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했다. 아마 조금 멀어진 기분 때문에 축구동호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함께 땀 흘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축구 선수 펠레를 아는지? 펠레의 저주 덕분에 우승팀에서 멀어져 간 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펠레는 어느 인터뷰에서 “축구는 스타가 아닌 팀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BS 축구동호회뿐만 아니라 어떤 축구팀도 혼자만 잘 하는 팀이 승리를 할 수는 없다. EBS 축구동호회는 EBS를 대표하는 동호회이자 축구팀으로서 더 열심히 땀 흘리는 동호회로 발전 할 것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깨끗한 승부를 펼쳐 보이는 EBS 축구동호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후 시원한 막걸리 한사발 할 수 있는 그런 친선경기도 환영한다(^^).

EBS 축구동호회 공식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ebsfighting>